

새로 나온 책

다윈의 미학서 찾은 ‘과학적 페미니즘’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동물의 ‘성선택’은 적자생존 법칙에 기초한 자연선택의 결가지일까. 책의 저자인 ‘새 덕후’ 리처드 프림은 지난 30여년간 수리남과 안데스산맥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새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러다 깨닫게 된다. 모든 자연의 경이와 아름다움이 결코 ‘자연선택’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선택은 자연선택의 시종이 아니다.



아름다움의 진화

리처드 프림 지음/양병찬 옮김/동아시아

책의 저자는 “단언하건대 우리는 진짜 다윈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성선택’이라는 다윈의 잊혀진 이론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예일대학교 조류학과 교수인 저자는 새를 관찰하던 중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조류학자의 연구와 관찰은 결국 ‘성적 자울성’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가장장제의 수호자들은 페미니즘이 ‘자연발생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부인하며 남성의 지위를 끌어내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새들의 생태와 진화론, 다윈의 미학을 연구한 끝에

‘과학적 페미니즘’의 근거를 찾게 된다. 양성간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정면 반박한다.

저자는 인간은 물리적인 강압과 폭력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바로 ‘여성의 선택’을 통해 진화해왔다고 말한다. 저자의 추론에 따르면 동물이 성적 자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비로소 ‘아름다움’에 의미가 생겼다. 색유열리티와 아름다움, 다윈의 미학에 바치는 찬가.

596쪽. 2만5000원. /김현정기자 hjk1@

예의바른 나쁜 인간

이든 콜린즈 지음/한진영 옮김/한빛비즈



도덕은 21세기에도 쓸모 있는가.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넘쳐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익숙한 시대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매일 도덕적 판단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헤맨다. 책은 우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덕 지형도를 제시한다. 도덕이란 무엇일까. 답을 얻기 위해 저자는 불륜 사이트 운영자, 두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 기업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 내쫓긴 CEO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324쪽. 1만6800원.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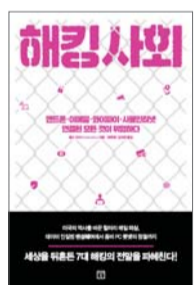
이현동 지음/42미디어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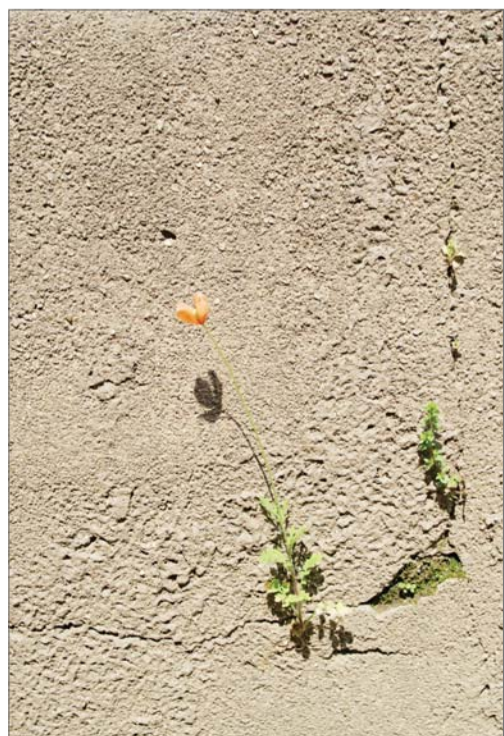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꿈꾼다. 성취감을, 행복감을, 경제적 자유를.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말에 위로받으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근근이 이어나간다. 저자는 ‘언제까지 적당히 소화할 하면서 살 거냐’고 일갈한다. 책은 건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아나운서가 된 저자의 치열한 시간을 반추하며 슈퍼프로로 성장하기 위해 지켜온 자기관리 비법을 소개한다. 248쪽. 1만4800원.

해킹 사회

찰스 아서 지음/유현재, 김지연 옮김/미래의창



바야흐로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약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해킹 사회’다. 보안을 강화한다고 경비원을 배치하고 CCTV를 늘려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가의 기밀 정보를 털어가고 멋대로 비밀을 유출하는 악질 해커를 막을 수 있을까. 책은 완벽한 보안이라는 허구에 가려진 해킹 사회의 민낯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해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352쪽. 1만7000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양귀비

물 한 방울 없어도 꽃 피우리
눈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홍근 작

우리 아이 위한 똑똑한 선물은



완구업계 어린이날 마케팅 붐물

다가오는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나 조카를 위한 선물을 두고 고심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완구업계가 ‘어린이날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코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완구업계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코딩 스마트 토이 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토이란 각종 IT 기술이 접목된 장난감을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소프트웨어와 친밀해질 수 있는 교육 효과 덕분에 차세대 장난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집보리 집월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구성과 풍성한 혜택으로 2019 맥포머스 매직월드 어린이날 특별 패키지를 선보인다. 맥포머스 매직월드 어린이날 특별패키지는 역할놀이를 통해 사회성 및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맥포머스 자석피스와 피규어, 신규 스마트 액세서리 등 맥포머스만의 자석 교구 노하우를 담았다. 특히, 어린이날 특별 패키지에는 ‘맥포머스 코딩 블록 세트’가 포함되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코딩의 기초적인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스마트 토이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맥포머스 매직월드 어린이날 특별패키지는 ▲총 370PCS의 역대 최대 구성 자석피스 및 액세서리 ▲정리 수



맥포머스 매직 월드 어린이날 특별패키지

/한국집보리 집월드는

한국집보리 집월드는

‘맥포머스 코딩 블록세트’ 패키지 레고코리아 기존 레고와 호환되는 ‘코딩로봇’ 한솔교육 창의력·코딩사고 높이는 교구

납이 가능한 4개의 맥포머스 스토리지 박스 ▲가이드북, 퍼즐북, 모델북, 플레이시트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국내 흡소핑 판매 11주년 기념 특별 구성 ▲무빙파크 세트(15PCS) ▲맥포머스트랜스포머 휠(1PCS)과 어린이날 패키지 특별 구성 ▲코딩 블록 세트(15PCS+6CARDS)가 추가로 제공되며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로 안성맞춤인 특별패키지 박스로 포장·배송된다.

레고코리아는 말하고 움직이는 코딩로봇 제품 ‘레고 부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레고 부스트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5가지 모델을 모두 만들 수 있는 레고 제품이다. 코딩 명령을 통해 말하고 노래와 춤까지 선보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애완 고양이, 자동으로 레고를 만들어주는 조립 기계와 음향 효과를 내는 기타, 탐험 차량 등도 만들 수 있다. 기존 모든 레고 부품과 100% 호환돼 자신만의 모델도 만들 수 있다.

▶ 레고코리아의 ‘레고 부스트’

특히 레고 부스트는 움직임과 색상, 음성 등을 인식하는 센서를 탑재해 특정 소리에 우리 말로 대답하거나 특정 색상의 브릭에 반응하고 손을 잡으면 뿌리치는 듯한 장난을 치는 등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스스로 반응하게 할 수 있어 기존 코딩 제품 대비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다.

한솔교육은 창의력과 코딩적 사고 발달을 돕는 ‘신기한나라 코딩 큐비코’를 출시했다. ‘신기한나라 코딩 큐비코’는 코딩놀이를 통해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키운다. 프리스쿨 코딩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의 언어발달 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해 아이가 코딩의 기본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교구를 통해 코딩 기초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메이커 활동으로 과학 융합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팝업북과 교구를 이용해 아이가 상상한 것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주도적으로 원리를 체득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토이는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신입 PD등 ‘블라인드 공채’

내일부터 5월8일까지 모집
영업·마케팅·방송기술 등
6개 분야서 총 20명 선발



공영홈쇼핑은 오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영업, 마케팅, PD, 방송기술 등 총 6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일반직의 경우

영업 6명, 마케팅 3명, 지원 1명, 방송직은 PD 5명, 카메라 1명, 방송기술 3명, CG 1명으로 총 20명 규모다.

공영홈쇼핑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다. 입사지원서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부터 블라인드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서류전형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기반의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거치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잡코리아 및 공영홈쇼핑 회사소개 홈페이지 내 채용안내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